

기획 / 발달장애, 그 보통의 삶 (6) 자립의 조건

# 홀로서기 돕는 '제주형 모델' 구축 절실

"좋으면서도 꿈만 같았어요." 자폐 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김대권(31)씨가 말했다. 김씨는 2020년 12월 자신만의 공간을 얻어 홀로서기 했다.

어릴 때 보육원에 맡겨진 김씨는 시설 생활이 길었다.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운영하는 '체험홈'에서 자립을 준비하기도 했지만 시설 밖으로 나서는 일은 막막했다. 비용 부담에 집을 구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자립 생활을 시작한 지 올해로 2년째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 지원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게 계기가 됐다. 안정적인 곳 살 곳이 생기니 자립이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언제쯤 자립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김씨는 "나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꿈만 같다"고 말했다.

김씨가 빠르게 자립할 수 있었던 것은 의사소통에 무리가 없기도 했지만 '행복플래너'의 역할이 컸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하나로 운영되는 행복플래너는 김씨가 새로운 공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다. 입주해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지원팀장은 "자립 초기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플래너가 방문해 집에서 직장까지 버스로 출퇴근하는 것부터 병원 이용까지 익숙해지게 하고 자립생활 정착금 신청 등 행정적인 부분도 지원했다"고 말했다.

주거·서비스 결합 '지원주택'... "자립 위해선 안정적 주거지 필수"

김씨가 지원 받은 '장애인 지원주택'은 주거와 사회복지서비스가 결합된 주거 형태다. 공공이 확보한 주택을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활동과 가사, 건강, 금전 관리 등을 지원한다. 제주에선 2019년에 처음 시작됐다. 제주시가 같은 해 8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분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선정되면서다. 현재



장애인 지원주택 입주자로 선정돼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김대권씨와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전경.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계기 제주시 지역 발달장애인 등에 지원주택 공급 시작 '주거+서비스' 효과... 주택 확보·사업 유지는 과제

사업 수행 기관인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와 제주시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제주시에 주소를 둔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과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주거, 생활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장애인 지원주택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사업이기도 하다. 이는 자립을 원하는 발달장애인의 욕구와도 맞물려 있다. 입주해 팀장은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만이 아니라 재가 장애인 중에서도 여관에서 지내는 경우가 있다"며 "생각보다 혼자 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고 주거지가 안정돼야 다른 생활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언급한 김씨의 사례도 안정적인 주거 공간이 자립생활의 기본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까지 김씨처럼 장애인 지원주택을 지원 받은 인원은 모두 19명이다. 이 중 뇌병변장애인이 3명이고 나머지는 발달장애인(지적 장애 14명, 자폐성 장애 2명)이다. 이들은 제주시가

제주도개발공사로부터 확보한 매입대주택에 보증금 부담 없이 살고 있다. 1인 당 평균 12~13만원의 월세로 길게는 20년(2년 단위 계약)까지 거주할 수 있어 안정적인 자립 생활이 가능하다.

주택 확보 안정성 더하고 '제주형' 서비스 고민해야

제주에서도 '장애인 지원주택' 사업이 시작돼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있지만 한계는 있다. 우선 주택 확보가 쉽지 않다. 그 명분도 불분명하다. 2020년 말에 제정된 '제주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도시사가 주거 공급 등 인프라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주택 확보 방안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현재 지원주택으로 공급된 주택 16호(원룸 13호, 투룸 3호) 모두 제주도 개발공사로부터 공동생활가정용으로 공급 받은 물량이다. 별도의 주거 지원 조례를 만들어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주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장애인 지원주택을 포함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제주형'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과제로 주어진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올해 말로 끝나게 되면서 이를 어떻게 이어갈지 결정하는 일이 시급해 졌다. 제주시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올해 새로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 사업의 경우 정책 대상이 제주시 지역 거주시설에 입주해 있거나 입소 대기 중인 장애인에 맞춰져 있어 재가 장애인은 소외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제주도와 제주시는 장애인 분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지자체 사업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아직 사업 범위와 내용은 확정하지 못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자체 예산 사업으로 전환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진행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드는 단계"라며 "'제주형'으로 진행할 수 있는 특화 사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김지은기자 >> 기사 원문은 한라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주 공직사회 부정부패 심각

경찰, 최근 4년동안 금품수수 등 803명 검거

## 내년 3월까지 특별단속

공직사회 부정부패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경찰이 200일간의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3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200일 동안 '부정부패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에서 발생한 부정부패 사건은 2018년 180건(검거 308명), 2019년 151건(검거 235명), 2020년 104건(검거 167명), 지난해 68건(검거 93명) 등이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1년에 200명 이상이 검거된 것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제주경찰은 >금품수수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부정 청탁·알선 등 4개 유형을 주요 단속대상으로 설정했으며,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공공단체 임직원 등 지위고하를 불문한 수사에 임하기로 했다.

특히 도호 세력 등이 개입된 조직·계획적 범죄는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초기부터 전담 수사하기로 했다. 지연·현연·학연 등에 의한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브로커 등 전문업자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금융계좌·통신자료를 확보·분석한다는 방침이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공직사회에서의 각종 부정부패 및 그릇된 특권의식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아울러 나랏돈은 논반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는데도 앞장서겠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송은범기자

# 6·1지방선거 수사 37건중 17건 완료

## 공소시효는 12월 1일

6·1 지방선거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의 수사 진척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6·1 지방선거 관련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은 총 37건이며, 피의자는 73명이다. 유형별로 보면 후보비방·허위사실유포가 19건(33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선거·사전선거운동 5건(9명), 기부행위 3건(3명), 투표지 활용 등 기타 10건(28명) 등이다.

37건 가운데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한 사건은 17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17건 중 9건(9명)은 혐의가 인정되며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8건(33명)의 경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이에 따라 제주경찰이 아직 쥐고 있는 사건은 20건(31명)이다. 6·1 지방선거의 공소시효 6개월로, 오는 12월 1일까지다.

이와 관련 최근 제주경찰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홍인숙(더불어민주당·아라동갑) 제주도의회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6·1 지방선거 당시 홍 의원이 당원 명부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촉발된 것이다.

한편 올해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제주경찰이 접수한 사건은 19건이다. 이 가운데 8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송은범기자

## 갯바위서 여성 숨진채 발견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해안가에서 여성 한 명이 숨진 채로 발견됐다.

14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8분쯤 운전향 인근 갯바위에 여성 한명이 엎드려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숨진 여성 주변에서 찾은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확인해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고, 주변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미늘·더덕 씹음병, 균핵병 예방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연작장애 토양 속독 살균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감소

토양 공팡이성 질병의 방제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뿌리혹병의 경감

YouTube 석회질소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직원 수시모집

##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 가식, 청진기식 수도매관 녹물정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블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당 시공 / 징크 공사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

그랜드보청기

한가위 고객감사 대축제 물가안정 이벤트

1 20만원 상당 삼신배양근 2 15만원 상당 UV진저기 증정기

※ 1번 소진시 2번 사은품 제공됩니다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2021 IFTBA 1000만 원 판매량 대상 1위

충전형 귀속형 보청기 충전형 보청기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삼총총 혼저 전화 주심서! 기다렸습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방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 O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 (무료주차)

서시라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점구이 사당로 225 2층 제주시서비스매점